

‘몸말’의 민족시학과 민족 젠더화의 문제

— 백석의 경우 —

김 옹 희*

1. 민족과 풍속의 발견
2. 몸말, 모국어로서의 방언
3. 음식기호와 축제의 몸기억
4. 민족과 젠더, 민족 시학의 딜레마
5. 결론

* 평택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국문초록

백석 시에서 방언과 음식, 방뇨행위, 명절의 풍습에 대한 구체적 일상사는 지금까지 민족문학이 보여준 당위성과 추상화를 넘어서게 한다. 구체적인 것으로서의 '사회적 리얼리티'를 구현한다. 미시사적 현상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산 체험을 통해 일상화된 삶의 현장에서 여성적 연대감과 동일체를 형성한다.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체득된 몸언어인 방언, 축적된 인자로서의 음식물, 풍속은 언어적인 중재 매체나 의식의 관념적 주입을 벗어난 '진정한 육체적 경험', '몸기억으로의 체험'을 불러낸다.

그럼에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식민당시 민족문인들과 마찬가지로 백석은 민족 삶에 대한 재현 구상에서 여성을 민족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을 외세의 압박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순수한 문화적 본질로 가정하면서 순수하고 탈역사적인 기표로 구성한다. 하여 백석 시에서 모성성의 공간은 식민현실을 위협하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한다. 모성성이 내포하는 몸기억을 통한 자아정체성의 환기와 동시에 '환상적 동일시'에 의한 무역사성이라는 이중성이다. 백석 시에서 모성의 공간은 민족성과 결부되면서 이와같은 복합성을 띤다.

백석 시는 근대라는 총체적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지 않는 대응의 방식을 식민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내부 즉 일상적이고 구체적 현장, 변방문화라는 탈근대적 형식에서 찾아낸다. 그럼에도 그의 유년은 타자의 흔적이 없는 환상적 리얼리즘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식민지성을 추상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기도 한다. 민족의 자기동일성 회복의 과정을 변방, 모성, 가족 개념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민족문학의 한 지형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민족을 젠더화함으로써 또다시 추상화하는 딜레마다. 결국 백석 시는 민족 기억의 문제와 모성성의 복합성을 가장 문학적으로 드러낸 증좌가 될 것이다.

핵심어: 여성적 연대감, 몸말, 방언, 모성성, 무역사성, 환상적 동일시, 민족성, 민족의 젠더화

1. 민족과 풍속의 발견

조선의 근대화는 식민체제 속에서 ‘민족’이란 개념을 대타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계기였다.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 과정이었으며 민족—국가 재건의 출발이기도 했다. 조선은 식민체제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비로소 민족 공동체 형성이라는 당면과제를 떠안게 된다. ‘한국근대 문학연구에서 ‘민족문학담론’은 민족 독립운동의 일환인 ‘국학’이라는 측면에서 민족문학사와 그 정전을 수립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유학생 지식인 엘리트 개혁자들은 외형적으로 제국의 지배에 대항했지만 내면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았다. 전근대로 지칭되는 봉건성을 야만으로 여기면서 문명 전파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했던 식민지배자의 계몽의 논리를 답습하고자 하였다. 거의 대부분 ‘보편자로서의 서구에 대한 열등의식과 대타의식’에서 결코 멀리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광수는 열혈 계몽의지로 전통사회의 삶과 문화를 부정하고 조선 근대화를 위한 구상에 여념이 없었다. 이때 피식민국가 지식인에게 일어나는 것은 “민족주의의 분열된 비전”¹⁾이다. 지식인은 식민주의에 의해 이성, 진보 그리고 계몽이라는 서구의 청사진과 협력하도록 강요받지만 외적인 층위에서는 서구의 인식론적 양식을 내재화하고, 내적인 층위에서는 외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통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즉 전통성에 대한 추구는 식민지 현실에서 민족주체에게 일종의 딜레마였던 셈이다. 식민지 현실에서 지식인 민족주체가 엘리트주의를 떨쳐버리고 진정으로 자민족에 관한 하층 역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1930년대 백석 시는 놀라운 한 지점을 성취해낸다. 백석은 오산학교를 거쳐 일본 동경의 청산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으며 조

1) Partha Chatterjee(1993), *The Nation and its Fragments: Colonial and Postcolonial Histo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13.

선으로 돌아와 조선일보사에서 편집일을 맡아보던 엘리트 유학생이었다. 영문학적 지식을 가진 백석이 선택한 문학은 근대 지식인 엘리트들이 염오했던 낡고 소멸되어가는 토속적이고 지역적인 방언의 세계였다. 시집 〈사슴〉에 실린 대부분의 시들이 그러하다. 1930년대 김기림과 정지용 등이 모더니즘에 대한 실험과 지적 탐구를 하고 있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백석 시에 나타난 평안도 방언과 시골 풍속의 디테일한 묘사는 매우 놀라운 것이다. 북방지역의 풍물과 방언은 독자들에게 낯설 뿐만 아니라 일차독서과정에서 충분히 독해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매감탕”, “반디집”, “오리치”, “조마구”, “쇠든밤”, “쟁제미”, “막써레기”, “당즈깨”(〈가즈랑집〉) 등의 시어를 과감히 시 속에서 구사한다. 명절 때의 풍습과 민속놀이, 무속, 속신과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시 속에서 그려진다. “머리와 체격과 걸음걸이와 용모가 이국풍정”²⁾을 느끼게 하는 모던한 지식인이었던 백석이 토속어와 토속풍물을 시적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은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또한 어린화자의 관점을 탐색해나가는 지점이거나 일관되게 객관적인 제시와 재현을 하는 방식은 김기림의 말대로 “전설의 나라, 향토의 얼굴을 보여주면서도 그것이 회상적 감상주의나 북고주의에 빠지지 않았”³⁾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백석은 전근대적 풍물을 재현하는 리얼리즘적 일상성을 드러내면서 지적 거리를 유지하는 모더니즘 정신을 보여준다. 백석 시에서 방언과 토속성은 결국 지각의 자동화를 막기 위한 “미적 전복”³⁾, ‘기법으로서의 개념’이라는 점을 유념해둘 필요가 있다.

사실 유년시절에 대한 섬세한 재현이 실제 민족적 역사적 형성물로서의 경험을 드러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년시절은 현재의 누적된 환상으로서의 ‘의식’을 암시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백석이 선택한 ‘어린아이’의 시선은 실제적 개념이 아니라 방법적 개념이다. 백석은 자연인으로서의 순

2) 안석영, 『조선문인인상기』, 백광, 1937, p.63.

3) 박수연, 「백석의 〈사슴〉에 나타난 모더니티 연구」, 『어문연구 제28집』, 1996, p.4.

수한 민족적 혈통을 아이의 시선에서 찾고자 했다. 백석은 북방 변두리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민족의 원형을 찾고자 하였고 토속적인 민족어와 체험화된 민족의 감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개별화를 통한 일반화는 연구사에서 끝없이 양가적 평가를 만들어냈다. 유년으로의 “심정적 퇴행과 그로 인한 허무와 파탄”⁴⁾이라는 부정적 평가와 “토속적인 서민정신”⁵⁾이라는 긍정적 평가다. 이와같은 평가는 백석 시집 〈사슴〉의 모더니티를 긍정적인 향토주의로 받아들인 김기림과 박용철, 그리고 백석이 스타일리스트에 불과한 시인이라고 혹평한 오장환⁶⁾의 대립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석이 당시의 모더니스트들 중에서도 문학과 현실, 문학과 역사의 관계항을 끝없이 고민하면서 민중, 민족의 일상사, 체험적 현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작품 해석에서 식민지적 폄박과 대응을 이념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만 작품을 평가한다면 민족 문학담론은 다분히 경직될 수밖에 없다. 이념적 입장에서 볼 때 백석의 자의식적 고민은 ‘허무’·‘퇴행’으로 평가될 뿐 식민지 현실 속에서 시적 대응의 특수성은 배제된다. 백석 시는 민족을 풍속, 풍습 속에서 재발견하기를 원했고 일상성의 시학으로 민족원형을 구현해 내려 했다.

이 글은 백석 시가 발견한 풍습, 방언이 민족의 자기 동일성 회복으로 형성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족 시학의 딜레마로서 민족 젠더화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백석의 시연구에서 여성에 대한 시가⁷⁾이

4) 이명찬, 『1930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소명, p.136.

5) 정효구, 「백석의 삶과 문학」, 정효구 편저, 『백석』, 문학세계사, p.194.

6) 김기림, 「『사슴』을 안고」, 조선일보, 1936.1.29.

박용철, 「백석시집 『사슴』평」, 『박용철 전집2』, 동광당, 1940.

오장환, 「백석론」, 『풍립 5호』, 풍립사, 1937.4.

7) 이승원, 「백석의 삶과 문학적 대응 양상 연구—여성과 관련된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7호』, 2002.

박민영, 「백석 시 연구, —자기 동일성의 인식 양상」, 『한국언어문학37집』, 1996.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인의 전기적 사실과 텍스트를 확인해가는 실증적 작업이거나 ‘모성성으로 자궁회귀’라는 원형이미지를 단순하게 대입시키는 작업이었다. 유년체험과 시 언어로의 구현에서 민족성, 모성성은 어떤 방식으로 전유, 변주되면서 접맥하는지 천착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백석 시가 민족과 언어의 문제, 민족과 여성의 문제에 특별한 개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긴요한 연구의 접근인 것이다.

2. 몸말, 모국어로서의 방언

식민지 시대 언어를 선택하는 분제는 제국주의의 언어에 대한 타자로서의 ‘국어’ ‘모국어’라는 상황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제국주의 언어에 대(對)한 소수자의 언어로서 모국어의 회복은 조선 문학인들에게 역사적 사명감과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1930년대 최초의 조선어 표준 표기법인 “맞춤법 통일안”과 최초의 표준 조선어 문법 “조선어 문법 통일안”이 나온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태준은 『문장강화』에서 이렇게 말한다.

“글짓기가 아니라 말짓기라는 데 더욱 선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표현하려는 것은 마음이요 생각이요 감정이다.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 가까운 것은 글보다 말이다”⁸⁾

글보다 말에 대한 강조는 민족어의 구체적인 심상과 모국어의 생활문화적 측면에 대한 주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태준은 언문일치운동을 통해 방언이 아닌 표준어를 쓸 것을 주장한다. 표준어의 창출은 근대국가를 구상하는 규범화에 대한 시도이다. 민족어, 표준어로서의 조선어에 대한 인식은 1930년대 방송, 신문, 매체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계도되고 일반

8) 이태준, 『증정 문장강화』, 박문서관, 1949, p.15.

화된다. 표준어로서의 언문일치제는 제국언어에 대응하는 모국어로서 ‘국어’의 정립을 가속화했고 근대국가 건설을 유효하게 하는 기제가 된 셈이다.

그러나 언문일치운동의 주체가 교육받은 지식인층이라는 불가피한 현상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이미 일정한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언문일치운동에서 말과 글의 주체는 편향될 수밖에 없다⁹⁾. 여기서 일반 민중은 자기 표현의 글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언문일치 운동과 멀리 떨어져 있던 농민들은 민요와 구전 전승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이태준은 조선어를 강조하면서 “국어에 의해서만 국민이 형성된다는 국어의 논리”를 전제하고 조선어의 정당한 존속을 호소한다.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국민’은 문자를 소유하고 지배할 줄 아는 인텔리들을 상상적 공동체로 전제한 셈이다. 이 지점이 근대국민 국가가 형성되는 부분이다. 근대가 형성되면서 생산된 개념들 ‘민족’, ‘향토’, ‘전통’은 철저하게 타자로서의 대응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 주지하다시피 기원에 대한 발견, 향토에 대한 발견은 근대에 대한 타자로서 도덕적 윤리적 거점, 자아동일화를 위한 본질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염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향토를 심미적 가치, 심정적 기원으로 대상화하는 방식에는 전 근대로서의 농촌사회를 계몽시키려 하는 시선이 뒤엎혀 있다. 고향, 향토는 순결한 공간, 원형적 공간을 회복, 보존해야 한다는 전제와 함께 여전히 미개발된 봉건성은 타파되어야 한다는 이중적 혼종이 섞이는 상징이 된다. 이것은 결국 ‘민족’ ‘전통’을 엘리트민족주의자들의 시선에서 재구성해내는 과정이며 그들의 딜레마를 드러내는 국면이다.

그런 측면에서 백석은 표준어로서의 조선어를 벗어나 방언으로서의 조선어, 변방어로서의 조선어라는 새로운 언어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일종의 소수어라 할 수 있는 지역어, 평북 정주의 사투리를 구사한다. 이와같은

9) 유종호, 『시와 토착어지향—한국시의 자기정의』,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p.15.

입장은 단순히 모국어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백석이 시에서 보여주는 방언은 오히려 국민적 문화와 조화된 담론에 포함되지 않으려는, 근대국가의 국경을 불안하게 하는 경계선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백석 시는 이질적인 언어를 말함으로써 국민국가에서 내세우는 ‘국민의 삶’이라는 낱아빠진 은유를 시원하게 벗어난다. 조선어의 작위적이고 인습적인 것에서 벗어나 생활 속의 현실감을 도모하게 한다. 실제하는 민족 삶의 구체화, 서민 민중 삶의 직접적 현실감각을 일깨운다.

날기명석을저간다는 닭보는할미를차굴린다는 땅아래 고래같은기와집에는언제나니차떡에 청밀에 은금보화가그득하다는 외밭가진조마구 뒷산어느메도 조마구네나라가있어서 오좁누러개는 재밭 머리 말의 문살에 대인유리창으로 조마구군병의 새잠안대가리 새잠안눈알이 드러다보는데 나는이불속에 자즈러불어 숨도쉬지못한다

또이러한밤갈때 시집갈치녀망내고무가 고개넘어큰집으로 치장감을가지고 와서 엄매와돌이 소기름에쌍심지의불을밝히고 밤이들도록 바느질을하는밤갈은때 나는아룻목의살귀를들고 쇠든밤을내어 다람쥐처럼밥어먹고 은행여름을인두불에구어도먹고 그러다는다이불용에서 광대넘이를뒤이고 또 놓어굴면서 엄매에게 움목에들은평풍의 셋뽀안천두의이야기를듣기도하고 고무더러는 밝는 날 멀리는못난다는피추라기를 잡아달라고줄으기도하고

〈古夜〉 부분

이 시에서 “날기명석”, “니차떡”, “청밀”, “조마구”, “살귀”, “광대넘이”¹⁰⁾는 생소한 평북 정주 방언이다. 백석 시는 대체로 서사성을 강하게 품미

10) “날기명석”은 곡식을 널어 말리는 곡식체를 뜻한다 “니차떡”은 인절미, “청밀”은 꿀을, “조마구”는 외밭달린 키작은 난쟁이도깨비를, “살귀”는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장판대신 쓰는 자리를, “광대넘이”는 광대 흉내를 내며 똥구는 놀이를 뜻한다. (송준 편, 『白石詩全集』, 학영사, 1995 참조)

하고 있다. 이것은 중세문학의 보편성을 허물고 동시대의 풍속과 체험을 당대적 시공간에 담아내려 했던 근대문학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근대서사는 단순히 세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섬세한 디테일을 보여줌으로써 진실성을 확보하려 한다. 백석 시에서의 서사성과 세부적 묘사는 진실에 가까이 가려는 필진성을 드러내면서 기억의 퇴색화에 대항한다.

어린 시절 밤에는 고래같은 기와집에 인절미와 꿀을 먹고 외발달린 키 작은 “조마구”(난장이도깨비)를 상상한다. 오줌을 누려 일어날라치면 유리창으로 조마구의 새까만 눈알이 자신을 보는 것만 같아 어린 화자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또 이런 밤에 고모와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어린 화자는 은행을 먹거나 이불 위를 구르기도 한다. 엄마에게 새빨간 청도복숭아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고모에게 아침에 메추라기를 잡아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있는 방 풍경은 현실세계로 넘어오기 이전의 순수한 쾌락원칙이 지배하던 시절이다. 어린아이는 삶이 역사화되기 이전 자연인의 모습이다.

여기서 정주 방언은 언어적 이질성을 드러내면서 국가 언어에 대한 언어적 변형을 적극적으로 감행한다. 언어의 이질성은 민중의 언어, ‘재발견된 모국어’를 발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건이다. 사실 “날기명석”, “조마구” 등과 같은 방언은 “몸과 마음”의 중간에 위치한다. 왜냐하면 방언은 어린시절 습득한 역사적 시간 이전 몸에 기억된 흔적이기 때문이다. 토착어는 몸으로 기억된 몸언어로서의 감각이다. 방언은 민중의 말이며 고향의 말이며 생활 속의 자연어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방언을 통해 시인은 적극적으로 자기동일화를 성취해낸다.

낡은질동이에에는 갈줄모르는늙은집난이같이 송구떡이오래도록 남아있었다

오지항아리에는 삼촌이밥보다좋아하는 찹쌀탁주가있어서
삼촌의입내를내어가며 나와사촌은 시름틸틸한 술을 잘도채어먹었다

제사날이면 귀머거리 할아버지가에서 왕밤을 밝고 싸리꼬치에 두부산적을
깨었다

〈고방〉 부분

송기떡이 출가한 늙은 딸처럼 남아 있는 장면, 윤이나는 항아리에서 삼촌이 좋아하는 찹쌀떡주를 꺼내 삼촌홍내를 내며 몰래 훔쳐먹던 일, 제삿날에 귀머거리 할아버지 댁에서 왕밤을 까고 두부산적을 끼어넣던 기억, 구석 나무뿔에는 할아버지가 삼던 집신이 많이 걸려 있고 헛간방 쌀독 뒤에 숨어 어린 화자는 저녁 먹으라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한다. “집난이”, “오지항아리”, “임내”, “나무말쿠지” 시인의 방언은 어린시절 체험이 자연의 상징인 인체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신체언어는 마음의 기관인 몸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시골 유년체험에서 갖가지 풍물을 기억하고 발설하는 것은 결국 섬세한 몸의 기억에서 건져올린 진동과 떨림, 목청의 울림과 관계한다. 그런 측면에서 방언은 철저하게 몸의 언어, 구어이며 구어의 직접성과 연결된다.

부족방언은 민족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예민한 정서지표, 몸의 지표가 된다. 부족방언은 언어를 사유하며 체계화하기 전 몸짓이며 동작이기 때문에 자기반성적인 의식이 기입되기 이전의 것들이다. 의식의 조 절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몸 언어 방언은 몸의 반응을 왜곡하는 일이 거의 없다. 곧 몸말로서의 방언은 정직한 원초성이며 몸의 진동이라 할 수 있다. 몸말은 무생물에 생명을 불어넣고 유년을 실제로 재현해내는 신체의 리듬이 된다. 백석은 이렇게 하여 어머니의 언어로서의 모국어를 새롭게 재구성해낸다. 〈여우난골族〉, 〈모닥불〉, 〈오리망아지토끼〉 등 사슴시편은 철저하게 방언으로 구사된다.

부족방언은 페미니즘에서 언급하는 대로 상징계 이전의 유년언어, 상상계의 몸 언어의 개념과 겹쳐진다. 표준어가 국가 언어, 아버지의 언어라면 방언은 몸언어, 어머니의 언어라 할 수 있다. 동감과 교감을 남기는 여성

적 관계성을 형성한다. 부족방언은 시 언어에서 은유적으로 기능하면서 음감을 만들어낸다. 방언은 시 전체에 특유한 기표로 작용한다.

무당이었던 할머니의 이야기 같은 무속신앙과 민간종교의 세계, 부족방언으로 구현되는 풍습,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며 삶의 조화로운 완결을 보여주는 완벽한 공동체의 연대, 표준어와 다른 이질적 언어, 이질적 풍속은 국가의 지배문화담론에 틈새로, 변이적 계기로 작용한다. 이것은 카프카가 말하는 소수자의 언어, 소수적인 문학의 영역이라는 부분과 접맥되기도 한다. 소수적 문학은 다수적 언어를 전유하면서 번역불가능한 언어학적 자폐증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소수적 언어는 그것을 무기로 다수어 안에 들어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¹¹⁾. 그렇다면 백석 시에서의 방언은 국민문화와 제국언어의 경계를 해체하면서 잃어버린 대상—민족의 고향—을 목소리를 발화하는 정치적 실천을 선취한다 할 수 있다.

3. 음식기호와 축제의 몸기억

백석 시에서는 익히 알려진 바대로 먹는 행위, 음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부분 나온다. 한국인에게 인간의 몸과 마음은 심장을 매개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마음이 통한다, 마음을 전한다고 할 때 마음은 몸과 구체적인 관계맺기를 한 연후에 소통이 가능하다¹²⁾. ‘먹는 행위’는 한국인에게 있어 마음과 몸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바르트에

11) Homi K.Bhabho,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02, p.44.

12)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쓰리다’ ‘정신이 피곤하다’ 등 한국인은 마음의 상태를 몸의 느낌을 비려서 드러낸다. 몸과 마음이 통합적 관계에 있음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 “사흘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말은 몸의 문제가 마음의 분별 판단의 기능과 관계함을 드러내는 말이다. (최봉영, 『문화와 욕망의 형성과 실현』, 『주체와 욕망』, 사계절, 2000, p.336 참조)

의하면 음식은 의사 소통 체계이고 이미지의 구현체이다¹³⁾. 음식은 관계와 상황과 행동의 시발점이다. 음식은 단순히 본능을 위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관계를 드러내거나 소통을 위한 의미작용을 담당한다.

낮은질동이에는 갈줄모르는늙은집난이같이 송구떡이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오지향아리에는 삼춘이밥보다좋아하는 찹쌀탁주가있어서/ 삼춘의입내를 내
 어가며 나와사춘은 시름털털한 술을 잘도채어먹었다
 제사스날이면 귀먹어리할아버지가에서 왓밤을밧고 싸리꼬치에 두부산적을
꿨었다//
 손자아이들이 파리떼같이몽이면 곰의발같은손을 언제나 내어들렀다//
 구석의나무말쿠지에 할아버지가삼는 소신같은짚신이 독독이걸리어도 있었
 다//
 넷말이사는킴킴한고방의쌀독뒤에서나는 저녁끼때에불은소리를 듣고도못
 들은척하였다

〈고방〉 부분

위의 시들에서 등장하는 음식물들 이를테면 “송구떡”, “찹쌀탁주”, “두부 산적”, “조개송편” 등 음식물은 따사로운 가족과 몸의 상상력을 유발한다. 따뜻한 훈기는 몸과 유년의 몽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백석 시에서 유별한 음식에 대한 체험, 음식물 종류에 대한 직접적 구사는 무엇보다 구체적 일상성의 힘을 획득한다. 백석 시에서 ‘음식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의미 생산 과정, 구체적 삶의 근원적 의미들을 복원한다. 일상성은 타자화된 몸을 정상적으로 복원한다. 몸감각은 본능적인 것처럼 보여도 실은 거기에 과거의 조상들이 행한 술한 실험과 판단과 결단이 스며 있다. 몸의 의식은 정신의 의식보다 훨씬 풍부한 정보와 유전이 보관되어 있다¹⁴⁾. 몸은 풍토와 풍속 속에서 형성되어 온 몸의 역사적인 느낌과 과

13) 이경, 「근대 소설과 음식의 기호학」, 『현상과 인식 28권』, 2004봄/여름호, 2004, p.135.

14) 김용호는 몸의 작용과정이 단순히 ‘본능’이 아니라고 말한다. 몸 안에는 과거

정이 누적되어 있는 집합체인 것이다.

토끼도 살이 오른다는 때 아르대즘퍼리에서 제비꼬리 마타리 쇠조지 가지
취 고비 고사리 두릅순 회순 산나물을 하는 가즈랑 집 할머니를 따르며 나는
벌써 달디단물구지우림 둥굴레우림을 생각하고 아직 멀은 도토리묵 도토리범
범까지도 그리워한다

〈가즈랑집〉 부분

내일같이 명절날인 밤은 부엌에 쪄듯하니 불이 밝고 솥뚜껑이 놀으며 구수
한 내음새 곰국이 무르끓고 방 안에서는 일가집 할머니가 와서 마을의 소문을
퍼며 조개송편에 달송편에 쨌두기송편에 떡을 빚는 곁에서 나는 밤소 팔소 실
탕 든 콩가루소를 먹으며 설탕 든 콩가루소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얼마나 반죽을 주무르며 흰가루 손이 되어 떡을 빚고 싶은지 모른다

〈古夜〉 부분

백석은 어린 시절 먹은 “도토리묵 도토리범범”을 그리워한다. 명절날
부엌 솥뚜껑에서 구수한 냄새를 맡고 조개송편 달송편을 빚던 일, 설탕
든 콩가루 속을 먹던 일을 생각한다. 장지문틈으로 무국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면 어느덧 잠이 든다. 백석 시에서는 음식을 끓이는 아궁이
의 불이 등장하고 음식이 끓으며 나는 훈기(“킴킴한부엌에서는 늙은홀아
버의시아부지가 미역국을끄린다/그마음의 외딸은집에서도 산국을끄린다”
〈寂境〉 “시래기를 삶은 훈훈한 방안에는 양염내음새가 싱싱도하다”〈秋夜
一景〉)가 오른다. 백석은 혈족의 삶에 대한 기억을 몸의 기억으로 환기시
킨다. 근대이성주의가 각종 배타적 문화권력을 통해 권력화 현상을 드러
내려 하였다면 백석 시에서 음식의 풍취는 분명 혈족적 관계성, 마음과
몸의 소통을 동시에 보여주며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적 사유체제를 허

조상 몸의 역사적 느낌(유전적 DNA)과 판단과 결단과정의 숨어 있다는 점에서 ‘몸의 의식’과 ‘정신의 의식’을 구분하면서 개념을 정의한다. (김용호, 『몸으로 생각한다』, 민음사, 1997, p.46 참조)

문다. 일테면 음식은 제도화, 질서화와 관계된 사회윤리를 넘어서 몸의 요청이며 다른 윤리를 위한 매개 역할을 한다. 다른 윤리란 곧 '배려의 윤리'를 의미한다. 배려의 윤리는 음식의 기호로 구체적 힘을 얻는다. 그것은 배타적인 관계를 넘어서 통합적 세계의 형식이다. 이와같은 배려는 당연하게도 '여성성'의 윤리이며 친밀감의 상징이다. 화자는 지금까지도 명절날 흰가루를 하얗게 손바닥에 묻히며 얼마나 송편을 빚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말한다. 음식의 배려와 여성적 친밀감은 시각적 논리와 이성을 넘어서 '접촉'과 '애무'의 감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린 시절 음식물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만으로 백석은 공동체의 강렬한 감각을 시 텍스트 위에 전면화시킨다. 냄새맡고 만져보고 그리워하는 것으로 신체 공통체적 관계를 환기한다. 정신과 몸은 구분되지 않는 '신체공통의 감각'을 드러낸다. 이와같은 몸과 마음의 작동은 우주의 모든 유기체를 거대한 순환 속에서 감각하고 느끼려는 '생명운동'이다. 정신은 사실 오직 하나의 몸에만 관련되어 있다. 정신은 각각의 다른 신체들과 개별적으로 관련지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몸은 다른 몸들과 함께 세계 속에 거처하고 있으며 다른 몸들의 다산성 속에서 작동한다. 몸의 유기성은 우주의 거대한 사이클 속에서 세계 몸의 유기성으로 순환하면서 다른 몸을 만난다. 생태주의적 시각 속에 몸은 놓여 있는 것이다.

냇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나도나와앉아서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그무슨이야기라도 다할것같다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膳友辭〉 부분

시인은 냇은 쟁반 위에 흰밥과 가재미와 함께 나와 앉아 저녁을 맞으며

무슨 이야기든 다할 것 같이 정겹고 미덥다고 말한다. 화자는 음식물과 선한 친구관계가 되어 이야기를 나눈다. 시인은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라고 말한다. 시인은 가자미와 흰밥과 친구가 되어 기꺼이 “우리”라는 공동체 관계, 상호간의 등가적 관계를 드러낸다. 지배와 피지배, 착취와 수탈이라는 강압적이고 불평등한 관계가 아닌 “평등과 조화의 이미지”¹⁵⁾이다. 음식물과 인간은 하나의 연결체가 됨으로써 생명을 잇는 존재가 된다. 시인은 음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스스로 말을 하게 한다. 음식물과의 대화, 음식물과 동등한 친구관계는 ‘유기체의 우주적 연대’를 환기한다.

봄침날 한중일내 노곤하니 벌불 작난을 한날 밤이면 으레히 싸개동당을 지하는데 잘망하니 누어 싸는 오즙이 넘적다리를 흐르는 따근따근 한 맛 자리에 평하니 괴이는 척척한 맛

첫 녀름을 일은저녁을 해치우고 인간들이 모두 터앞에 나와서 물외포기에 당콩포기에 오즙을 주는데 터앞에 발마당에 셋길에 떠도는 오즙의 매캐한 재릿한 내음새

〈童尿賦〉부분

음식물과의 일체감은 배설물 또한 몸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방식으로 나아간다. 어린 화자는 봄날 들불 장난을 하고 그날 밤 누워 오즙이 넘적다리를 따근하게 흐르는 척척한 맛을 느낀다. 첫여름 저녁 사람들이 오이 줄기와 강낭콩줄기에 오즙은 누면 발마당 셋길에 오즙의 매캐하고 재릿한 냄새가 난다. 몸은 다산성의 성격을 지니는지라 음식물과 하나의 몸을 형성하고 오즙과 하나의 몸을 형성한다. 백석 시에서 몸은 다른 몸과의 끝없는 연계성 속에 있다. 공동체가 음식을 함께 먹고 음식물과 사람이 서로가 상호 관계하고 또 배설하면서 몸의 일부를 배출하는 끝없는 유동성

15) 광봉재, 「백석 시의 이미지 연구—'불'과 '여성'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24권』, 1999, p.279.

의 흐름을 드러낸다.

특히 위 시에서 오즘은 원형적 모성 공간, 모체 안에서 얼마든지 배설할 수 있던 것이 현실계의 공간에서는 비천함과 연결되는 어떤 것이 된다. 배설물은 고상하고 깨끗한 몸에 대한 저항과 거부로 읽혀진다. 눈물, 땀, 오줌, 토사물 등은 실은 주체와 객체의 경계선에서 주체도 객체도 아닌 어떤 것¹⁶⁾이다. 백석 시에서 자주 나오는 방뇨행위와 '오즘줄기'는 여성적이고 모성적인 울림을 가진다. 그것은 금지된 욕망의 대상이 일어나는 원형적 모성의 비객관성의 공간이며 욕구의 장소가 된다. 음식과 배설물의 신체적 근접과 배려의 윤리는 지속적인 현재의 결속감을 강화한다. 이것은 '잔치' '명절'이라는 축제 분위기로 연결되면서 흥겨운 몸의 연대와 구체화로 나아간다.

명절날나는 엄마아빠따라 우리집개는나를따라 진할마니진할아바지가있는큰
집으로가면

.....

밤이깊어가는집안엔 엄마는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간한방을잡고 조아질하고 뽀뽀이굴리고 바리깨들뽀뽀하고 호박때기하고 제비손이구손이하고 이렇게 화디의사기방등에 심지를 땀번이나 독우고 흥계닭이 몇번이나올어서 조름이오면 아랫복싸뽀 자리싸뽀음하하며 히드득거리다잡이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텅납새의 그림자가치는아침 시누이동세들이 옥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셋문틈으로 장지문틈으로 무이징계국을 끄리는 맛있는내음새가 올라오도록잔다.

〈여우난굴 族〉 부분

명절날 놀이와 음식은 흥겹게 몸을 찬양하는 것이다. 음식을 먹고 웃고

16) 크리스테바에 의하면 이와같은 분비물, 배설물을 비체(非體)라고 칭하고 비체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구분보다 앞선다고 말한다. 비체인 분비물들은 모성적 원형적 매력과 증오의 장소가 된다고 언급한다. (Julia Kristeva, 고갑희 역, 「시적 혁명과 경계선의 철학」, 『페미니즘의 오늘과 미래』, 민음사, 2000, p.212 참조)

이야기하는 것, 명절은 일상을 전복하고 변형하고 상호주관적인 대화를 하게 한다. ‘반위계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명절날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놀이를 함으로써 현실세계를 무너뜨리고 동시에 공동체의 현재를 안온해 하며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한다. 밤이 깊어가면서 엄마들은 엄마들끼리 아랫방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온갖 명절놀이를 한다. 명절의 축제분위기는 집단적 조화와 평화를 영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백석은 조선인의 명절, 축제 풍습 속에서 주체와 타자, 개인과 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음식과 웃음, 놀이가 가지는 육체화된 풍속¹⁷⁾을 보여준다. 계급적 위계성을 깨뜨리고 집단적 몸 지각을 회복시킨다. 풍속은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일신상(一身上)’의 산체협¹⁸⁾이다. 백석시는 식민화된 조선의 현실에서 조선의 풍속과 음식, 오랜 관습으로 축적된 몸 체험의 역사를 통해 민족 삶의 리얼리티를 마련한다.

4. 민족과 젠더, 민족 시학의 딜레마

백석 시에서 방언과 음식, 방노행위, 명절의 풍습에 대한 구체적 일상사는 지금까지 민족문학이 보여준 당위성과 추상화를 넘어서게 한다. 구체

17) 김남천은 풍속을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풍속을 육체에 연결시킨다.

“풍속이란 사회적 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습관 습속은 사회의 생산기구에 기(基)한 인간 생활의 각종 양식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결정을 본다. 이라하여 이것은 일방으로 ‘제도’를 말하는 동시에 타방으로 ‘제도의 습득감’을 의미한다. 풍속, 습속은 생산관계의 양식에까지 현현되는 일종의 제도를 말하는 동시에 다시 그 제도 내에서 배양된 인간의 의식인 제도의 습득감까지를 지칭한다. ……사회기구의 본질이 풍속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전히 육체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김남천은 제도의 습득감을 포함함으로써 육체화되는 풍속을 이야기하고 있다.(김남천, 『일신상의 진리와 모랄』, 정호웅·손정수 엮음, 『김남천 전집1』, 박이정, 2000, pp.358~359)

18) 김경훈, 「문화와 풍속에 대한 짧은 시론」, 『세계문학』 2004.봄호, p.221.

적인 것으로서의 '사회적 리얼리티'를 구현한다. 미시사적 재현(소역사로서의 민중의 삶)은 역사적으로 축적된 산 체험을 통해 일상화된 삶의 현장에서 연대감과 통일체를 형성한다. 어린 시절부터 몸으로 체득된 몸 언어인 방언, 축적된 인자로서의 음식물, 풍속은 언어적인 중재 매체나 의식의 관념적 주입을 벗어난 '진정한 육체적 경험', '몸 기억으로의 체험'을 불러낸다.

그런데 여기서 백석 시의 민족 시학적 의미가 가지는 복합적 딜레마를 제시해볼 수 있다. 백석 시가 근대에 대한 타자로서 민족의 일상적 소역사를 기록화함으로써 식민현실과 근대를 넘어서려 했지만 이 안에서 민족 공간이 젠더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점이다. 식민당시 민족문인들과 마찬가지로 백석은 민족 삶에 대한 재현 구상에서 민족과 여성을 동일시하고 있다. 여성을 외세의 압박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순수한 문화적 본질로 가정하면서 순수하고 탈역사적인 기표로 구성한다. 어머니와 고모가 바느질을 하는 고향 밤의 방언 풍경, 부엌에서 끓고 있는 곰국냄새 등 백석 시는 원형적이고 선형적인 틀로서 여성의 공간을 민족의 공간으로 치환한다. 이것은 민족이 주어진 실체라기보다 '상상적 공동체'라고 말하는 베네딕트 앤더슨의 말처럼 민족을 여성으로 관념화, 젠더화하는 일방성을 환기시킨다. 백석이 민중의 삶, 하층민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점은 분명 민족문학의 정치학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방언의 구사와 음식과 몸기억으로서의 구체적 일상으로서의 시학은 민족 주변을 통한 문화정치적 시각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이때 궁극적으로 재현되는 민족의식이 음식, 몸기억 등을 통해 모성성의 신화, 초월적 기의로서의 근원적 여성성으로 회귀한다는 점이다. 백석 시의 공간은 모든 대립과 갈등이 은폐되는 여성성의 환상공간¹⁹⁾으로 치환된다. 이때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정체성과 달

19) 대개 유년의 기억이 많이 소실되고 잊혀진다는 측면에서 백석 시에서의 유년 기억의 소서사는 전략적 기억화이며 기록화라 할 수 있다. 여성성의 공간은 백석의 민족적 낙원의식 속에서 환상적으로 구사된다.

리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재현물이 된다. 흔히 식민지에서 국가는 ‘어머니 나라’로 상징화되고 민족을 여성으로 체화하는 방식을 환기해 볼 수 있다. 모국, 모국어라는 은유적 호명은 그것에 대한 증좌다.

여기서 작동하는 것이 ‘집단적 기억’이다. 여성이 민족과 일체화되는 과정에서 ‘기억의 흔적’이 개입한다. 민족의식은 ‘민족적 기억’을 불러냄으로써 과거를 통해 현재를 재구성하려 한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은 어린 시절 기억에서 일부분만 정신적 과정으로 보존된다는 것이다. 기억은 얼마든지 억압과 반복, 쾌락 원칙에 의해 왜곡이나 수정이 일어난다. 그런데 백석 시에 나타난 유년의 기억들은 매우 정교하여 사실적 고증이 뒷받침된 듯 느껴질 만큼 구체적이며 사실적이다. 기억이란 파편적일 뿐이며 단편적인지라 기억의 내용은 어떻게 통합시키는가에 따른 구체화의 관점에 달려 있다. 기억은 결국 과거에 대한 현재의 재구성물이며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이루어진 주관적 경험들이 창조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백석 시에서 기억은 역사적 진실이라기보다는 서사적 진실에 가깝다. 즉 집단 구성원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의도된 집단적 기억의 재구성이다. 이와같은 과정은 결국 역사 의식과 민족 이념의 묘사와 중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숙고하게 하고 기억의 장으로서의 축제문화, 민족 신화를 호명한다. 음식과 명절, 풍속과 습득된 제도(〈名器〉에서 나타난 제사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풍습)는 민족정체성을 함양하고 민족을 이데올로기적 공동체로 묶기 위한 기억 훈련의 매개가 된다. 백석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맹목적 전통주의’로 부를 수는 없다. 백석 시에서 의식적 재구성은 민족 기억을 ‘다시 불러내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망각된 ‘진정성’을 문학적으로 호명하려는 시도였다. 역사 속에서 민족 기억의 조각들을 찾아내고 기억을 의도화함으로써 반근대 저항의 가능성을 짚어보려 한다.

다만 여기서 여성이 민족을 위한 알레고리가 된다. 이때 여성은 구원적 공간으로서의 모성적 민족의 상징이거나 미개하고 핍박받는 전근대의 상징으로 추상화된다. 백석 시에서 여성은 명절과 음식에서의 훈훈한 생명

력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근대의 후진성, 꺾박받는 민족의 상징으로 전경화되기도 한다. 백석의 시 〈八院〉에서 어린 계집아이는 내지인(內地人) 주인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다 추운 겨울날 울면서 버스를 타고 떠난다. 계집아이는 겨울 차가운 물로 손등이 다 터져있다. 〈女僧〉에서 여인은 야생벌로 나간 지아비를 십년을 기다린다. 지아비는 오지 않고 데리고 있던 어린 딸이 죽자 돌무덤을 해마다 여승이 된다. 꺾박받는 여성을 민족과 등가로 두는 것은 “공격적인 남성성으로 연상되는 제국주의와 대조적으로 피식민 경험을 여성적인 희생과 순응과 연결”²⁰⁾ 지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여성은 고통당하는 ‘민족’이라는 대명사가 된다.

민족을 젠더화하는 수사는 여성들의 다양한 차이를 민족의 이름으로 단일화해버리는 일을 범할 수 있다. 민족은 근원적 원형성으로서의 무성적 여성 이미지에 의존하거나 꺾박받는 희생적인 여성으로 대치되면서 민족 담론에서 비생산적인 모든 섹슈얼리티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²¹⁾. 민족문화와 민족주의문학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점²²⁾, ‘민족’이라

20) 임호준, 「국가로서의 여성:혁명 후 쿠바 영화에서의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이베로아메리카연구Vol.11.No.』, 서울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2000, p.111.

21) 주창규, 「탈-시민 국가의 민족과 젠더(다시)만들기」, 『영화연구Vol.12No.1』, 2000, p.186.

22) ‘민족의식’을 부르주아 민족주의에서의 민족 이해와 구분지어 부르주아 제안한 것은 해방 직후의 안함광이었다(안함광, 「민족문화론」, 김재용, 이현식 편, 『민족과 문학』, 박이정, 1998), ‘민족주의 문학’과 ‘민족문학’은 분명히 구별되는데 ‘민족주의 문학’이 민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족일반으로 치환하며 보편주의의 미망에 빠져버린다면(그렇게 하여 ‘국가주의’에 빠져버린다면) ‘민족문학’에서의 ‘민족’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분단 및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다. 특히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서구에서의 ‘민족주의’개념이 동아시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한국에서 민족문학에서의 ‘민족’은 영원하거나 항구불변의 ‘주체’가 아니며(‘민족’을 영원불변하고 항구적인 주체로 설정하는 것이 바로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민족’이다), 혈통이나 언어, 지역이나 문화와 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동원기제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물질연관에 의해 형성되는 개념이다.

는 이름으로 내부의 차별과 갈등을 은폐하려는 위험을 경계하자는 민족문학담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백석 초기시에서 여성성은 모성성으로서 긍정적 대안적 면모에 배타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이다. 여성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세밀한 천착이라든가 여성의 구체적 삶의 조건에 좀더 육박해가는 지점이 희박하다. 백석이 민중의 언어와 민중의 음식축제, 문화 풍속을 통해 민족의식을 드러내려 한 점은 민중문화 정치학으로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여성성’에 대한 신화성을 견지함으로써 다시 민족 환상 공간은 젠더화된다.

5. 결론

결국 백석 시에서 모성성의 공간은 식민현실을 위협하기도(퇴행적 나르시시즘의 안전성) 품어주기도 한다. 백석 〈사슴〉시편에서 모성으로의 귀환, 원형적 어머니로 돌아가려는 욕망은 자아와 타자의 경계가 불명확한 공동체의 공간이다. 가족공간은 기억작용에 의해 문학의 원재료인 ‘이미지’로 존재한다. 이와같은 이미지는 통합과정으로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지만 한편 현실에 대한 무역사성의 상태를 던져줄 수 있다. 이것은 모성성이 내포하는 몸기억을 통한 자아정체성의 환기와 동시에 ‘환상적 동일시’에 의한 물현실성이라는 이중성이다. 백석 시에서 모성의 공간은 민족성과 결부되면서 이와같은 복합성을 띤다.

요컨대 백석 시는 근대라는 총체적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지 않는 대응의 방식을 식민지 외부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식민지 내부 즉 일상적이고 구체적 현장, 변방문화라는 탈근대적 형식에서 찾아낸다. 그럼에도 그의 유년은 타자의 흔적이 없는 모성공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식민지성을 추상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이 들기도 한다. 민족의 자기동일성 회복의 과정을 변방, 모성, 가족 개념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민족문학의 한 지

형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민족을 젠더화함으로써 또다시 추상화하는 딜레마다. 백석 시는 민족 기억의 문제와 모성성의 복합성을 시적 자의식으로 드러낸 뚜렷한 문학사적 증좌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봉재, 「백석 시의 이미지 연구—'불'과 '여성'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24권』, 1999.
- 김경훈, 「문화와 풍속에 대한 짧은 시론」, 『세계문학』, 2004.봄호.
- 김남천, 「일신상의 진리와 모랄」, 정호웅·손정수 엮음, 『김남천 전집1』, 박이정, 2000.
- 김기림, 「'사슴'을 안고」, 조선일보, 1936.1.29.
- 박민영, 「백석 시 연구—자기 동일성의 인식 양상」, 『한국언어문학37집』, 1996.
- 박수연, 「백석의 〈사슴〉에 나타난 모더니티 연구」, 『어문연구 제28집』, 1996.
- 박용철, 「백석시집 '사슴'평」, 『박용철 전집2』, 동광당, 1940.
- 송준 편, 『白石詩全集』, 학영사, 1995.
- 안석영, 『조선문인인상기』, 백광, 1937.
- 오장환, 「백석론」, 『풍림 5호』, 풍림사, 1937.4.
- 유종호, 「시와 토착어지향, 한국시의 자기정의」, 『현실주의상상력』, 나남, 1991.
- 이경, 「근대 소설과 음식의 기호학」, 『현상과 인식28권』, 2004봄/여름호, 2004.
- 이명찬, 『1930년대 한국시의 근대성』, 소명.
- 이승원, 「백석의 삶과 문학적 대응 양상 연구—여성과 관련된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제9호』, 2002.
- 이태준, 『증정 문장강화』, 박문서관, 1949.
- 임호준, 「국가로서의 여성:혁명 후 쿠바 영화에서의 페미니즘과 민족주의」, 『이베로아메리카연구Vol.11.No』, 서울대학교 스페인중남미연구소, 2000.
- 정효구, 「백석의 삶과 문학」, 정효구 편저, 『백석』, 문학세계사.
- 주창규, 「탈-식민 국가의 민족과 젠더(다시)만들기」, 『영화연구Vol.12No.1』, 2000.
- 최봉영, 「문화와 욕망의 형성과 실현」, 『주체와 욕망』, 사계절.

- Homi K.Bhabho, 나병철 역, 『문화의 위치—탈식민주의 문화이론』, 소명출판, 2002.
- Julia Kristeva, 고갑희 역, 「시적 혁명과 경계선의 철학」, 『페미니즘의 오늘과 미래』, 민음사, 2000.
- Partha Chatterjee(1993), *The Nation and its Fragments: Colonial and Postcolonial Histo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Nation Poetry and Gendering the Nation of the Mother tongue

— in Baek Seok's Poems —

Kim, Yong-Hee

Elements for daily life, including dialect, food, urinating, and traditional holiday customs described in detail in the poems of Paek Seok go beyond the oughtness and abstraction that the national literature has displayed so far. In other words, the real elements for daily life embody "social reality". Phenomena in a micro-historical approach form feminine solidarity and unified entity in daily life through real experience accumulated throughout history. Dialect as body language learned from childhood, food as accumulated factor, and customs are no longer medium for linguistic mediation or go beyond the idea injection into consciousness. They call out "real physical experience" or "Experience as body's memory."

Nevertheless, what we should take into account is that like other writers in the area of the national literature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poet, Baek Seok identified woman with the nation in the construction of reviving the people's life. Assuming that woman is the pure essence of literature that should be protected from external suppression, he constructed woman as pure and ahistorical signifier. Space of motherhood in the poems of Baek Seok threatens as well as embraces the colonial reality. The motherhood displays dual features of awakening the self-identity through the body's memory that it implies, and ahistoricity through fantasy identification. The space of motherhood contains this complexity as it is

associated with the nation's identity.

In short, Baek Seok's poems found a countermeasure not influenced by the holistic ideology of modern times, not outside of the colony but inside the colony. i.e., in the post-modernistic form of casual, real field or marginal culture. However, considering his childhood is fantastic realism without others' traces, rather, there rises a doubt that the traits or nature of the colony is abstracted. Given the process of recovering the commonality of the nation was sought in the concept of marginality, motherhood and family, his poems show one feature of the national literature. But at the same time, dilemma arises due to the abstraction of the nation by gendering. In the end, Baek Seok's poems will be corroborative evidence that displays well in the literature the problems of the nation's memory and the complexity of motherhood.

key words : Feminine solidarity, body language, dialect, motherhood, ahistoricity, fantasy identification, ethnicity, gendering the nation

■ 위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 심사 완료 후, 11월 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